

### 특별 대담 새 대통령에 바란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됐다. 기업인 출신의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경제'라는 이슈를 내걸고 전 국민에게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특히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감정을 극복해

내겠다'는 선거구호를 그의 공약으로 믿고 있는 호남민은 이번에는 낙후지역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크다. 광주일보는 전문가 대담을 통해 새정부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를 정리했다.

# 호남 두배 지원·인재 등용...영산강 운하 꼭 지켜져야

- ▶일시=20일 오후 3시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 ▶대담=이정록 전남대 교수  
고영만 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 ▶사회=조경완 편집부국장

새 정부에게 호남민이 바라는 바는 많다.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이정록=한나라당 호남 공약의 특징은 전북과 광주·전남을 모아서 광역경제권으로 한다는 것이다. 인접한 광역자치단체를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광주·전남만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영산강운하, 남해안 선벨트, 광주문화수도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영산강 운하를 통해 영산강을 살리고 광주·목포·나주를 연결하

자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 등 제도적 틀을 바꿔 놓았다. 이 토대 위에서 이 당선자는 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3년 내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와서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광양·여수·순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무안·목포·영암·해남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지역 특색을 살리는 다목적 내륙항 복합지구 개발, 글



#### 이정록

- ▲대한지리학회 회장
-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위원회 위원
-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 고영만

-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 ▲아일랜드 UCD 경제학 석사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 공동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 차질 없어야

광양항 육성·여수 엑스포 지원도 과감히 ”

는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다. 남해안 선벨트 구상은 J프로젝트, 고흥 우주항공, 여수 엑스포, 통영 조선, 창원 기계, 부산 물류산업 등을 연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목포에서 부산까지를 하나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하나의 성장 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광주 문화도시 건설도 보다 확대해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고영만=호남은 최근 들어 사회간접시설 현황이 나아졌다고 하나 지금도 부족하다. 지역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기업 유치다. 이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새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화려하지만 추상적인 공약보다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 호남으로 기업이 오는데 이 당선

로벌 농산물 물류기지 육성 등 한나라당의 호남권 8대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중 첫째로 광양·여수·순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부분에 대해 평가 하려.

▲고=중요한 내용이지만 공약은 포괄적이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광양항을 꼬집어서 개발하겠다는 식의 공약이 중요하다. 광양항은 국민의 정부 이후 투자를 시작하고 참여정부에서도 양방향제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계속했지만 최근 들어 흐지부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항은 투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광양항은 투자에서 배제되면서 퇴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광양항에 대한 배후단지를 더 조성하는 등 집중적인 투자가 더 필요하다.

—자생력을 기대하기에 앞서 정부가 집중부양 해야 한다는 말인가.

▲고=그렇게 해야 한다. 광양항이 낙후해서는 호남에 기업 유치가 안 된다.

—한화해권 기지 육성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된 것이 없는 데.

▲이=새만금프로젝트에서 J프로젝트 등까지 연계시키는 내용이다. 5년 내로 기업이 오는 등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 토대를 만들 것이다.

▲고=공약은 두루뭉술해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포항은 옛날엔 3대 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그런데 북한은 개성·해주·남포 등 항해권을 주로 개발하고 있다. 부산항으로 운송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 목포와 군산항을

북한과 중국의 물자 교류항으로 육성하면 호남권 기업환경은 좋아질 것이다.

—영산강운하를 살펴보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환경에 문제만 없다면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이=실리적으로 영산강운하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모두 2조원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운하는 민자지만 영산강운하는 국고다. 이 당선자는 오는 2009년 영산강운하를 정부운하와 같이 착공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럴 경우 영산강운하는 2년 안에 완공이 가능하다. 정부운하는 워낙 큰사업이고 반대도 많이 터럭거리겠지만 영산강운하는 어렵지 않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 사업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도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이=그렇지만 예전과 달랐다. 비록 두 자리는 아니지만 8~9%의 지지를 보여줬다. 어찌됐든 호남의 정치적 유산에서 조금 자유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 10% 미만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과거의 정치적 유산에서 몸을 푸는 단초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나라당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욱이 이 당선자는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도 없다. 한나라당도 실용적 측면에서 호남을 바라볼 것이다. 호남지역 개발에서 소외나 불이익은 말도 안된다.

▲고=광주·전남에서도 가장 질실한 것은 경제다. 당선자로서 호남득표에 서운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경제만 살려주면 호남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당선자가 후보 시절 호남을 2배로 지원·발전

시켰겠다고 했다. 기대된다. 인재등용도 최대한 노력해줘야 한다.

—이 당선자 브레인을 중 일부가 참여정부가 우격다짐으로 추진한 지방분권사업을 그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인접 조절은 있어도 틀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수정은 불가피하다.

기업도시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기업에게 입주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메카니즘에 맡길 것이다. 그러나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갈 것으로 본다.

—참여정부 초반 전남 서남권에 큰 판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허허벌판이다. 새정부는 어떨까.

▲고=이 당선자는 추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본다. 의지만 있다면 J프로젝트는 성사될 것이다.

—여수엑스포가 순조롭게 준비되면 이명박 전권 후반부를 화려하게 장식할 텐데.

“ 지지부진 J프로젝트도 통큰 국가 지원 기대

표 적었지만 정서 큰 변화...차별은 안될 말 ”

드디어 성공에 길이 밝아지며 희망의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 현대건설 상무 힐스테이트 당첨자 발표

2007년 12월 21일 발표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 당첨자 명단 발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001호	김민준	1002호	이영희	1003호	박지민
1004호	정수민	1005호	최현정	1006호	김동욱
1007호	신지현	1008호	정민준	1009호	이민서
1010호	최영준	1011호	김민서	1012호	정수민
1013호	신지현	1014호	최현정	1015호	김동욱
1016호	신지현	1017호	정민준	1018호	이민서
1019호	최영준	1020호	김민서	1021호	정수민
1022호	신지현	1023호	최현정	1024호	김동욱
1025호	신지현	1026호	정민준	1027호	이민서
1028호	최영준	1029호	김민서	1030호	정수민
1031호	신지현	1032호	최현정	1033호	김동욱
1034호	신지현	1035호	정민준	1036호	이민서
1037호	최영준	1038호	김민서	1039호	정수민
1040호	신지현	1041호	최현정	1042호	김동욱
1043호	신지현	1044호	정민준	1045호	이민서
1046호	최영준	1047호	김민서	1048호	정수민
1049호	신지현	1050호	최현정	1051호	김동욱
1052호	신지현	1053호	정민준	1054호	이민서
1055호	최영준	1056호	김민서	1057호	정수민
1058호	신지현	1059호	최현정	1060호	김동욱

발표처: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처, 현대건설